제15강 안젤름 키퍼 : 묵시록적인 사물의 절규Ⅱ

(1교시-0827-03)

◎ 사물의 이중성에서 빛나는 신비

▲ 키퍼 작품에서 드러나는 사물의 힘(색채)

- 음울한 신비의 표현
→ 채도가 낮은 회백색과 청회색 등을 철저히 활용. 검정색과 갈색을 휘둘러 놓음.

- 대지의 중력을 느끼게 하는 색채
→ 모든 생명을 거두어 가는 거대한 힘의 상징.

- 하이데거의 영향 : 하이데거, '시인의 역할은 존재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옮기는 일종의 존재의 사제이자 예언자아다.'
→ **진정한 예술가란, 존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영적인 중매자, 예언자**이다. (존재의 손)

- 묵시록적인 예언이 가득 찬 느낌의 작품들 (소실점이 작품의 꼭대기에 있다.)
→ 급격한 속도로 극단을 향해 치닫는 강렬한 생적 에너지의 넘침.

- 대립되는 요소들의 통합적인 표현
→ 자연과 문화, 현재와 역사, 이성과 신화, 인상과 기억, 생명과 죽음, 하늘과 땅, 천사와 뱀 등 이질적인 것들을 하나로 통일.
⇒ 지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종합적인 존재 전체를 선사. 그 존재가 얼마나 미세하고 복합적이고 거대한 것인가를 느끼게 한다.
⇒ 키퍼가 바라본 세계란, 오늘날의 황량한 시대정신에 부식되고 침식된 탓에 절규하는 존재의 표정이었다.

▲ 작품 설명

그림1 모든 사람은 자기의 천구아래 서 있다(1970)

그림2 가지와 더불어 누워있는 사람(1971)

그림3 겨울풍경(1971)

그림4 숲 속의 사람(1971)

그림5 독일의 정신적 영웅들(1973)

그림6 부활의 출구(1973)

그림7 그림=태움(1974)

www.artnstudy.com

그림8 풍뎅이 날다(1974)

그림9 march(1974)

(2교시-0827-04)

▲ 작품 설명

* 그림10 nero paints(1974)

* 그림11 화가의 수호천사(1975)

* 그림12 낙하하는 천사(1979)

* 그림13 Grane(1980-93)

* 그림14 meistersinger(1981-84)

* 그림15 Montsalvat(1981-94)

* 그림16 Margarete(1981)

* 그림17 Your gold hair(1981)

* 그림18 Hortus philosophorum(1982-91)

* 그림19 Nuremberg(1982)

* 그림20 세라핌(1983-84)

* 그림21 천사의서열(1983-84)

* 그림22 Sulamith(1983)

* 그림23 구름(1984-85)

* 그림24 Red-sea(홍해)(1984-85)

* 그림25 Jerusalem(예루살렘)(1986)

♣ *강의의 핵심*

미술, 특히 회화는 사물의 본질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다. 우리는 회화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론을 마련해 갈 수 있다.

⇒ 위대한 화가들의 그림을 통해 사물의 존재론적인 표정들을 포착해 낼 수 있는 것. 회화야말로 존재론적인 위대한 통로, 표현이 될 수 있다. 비가시적인 것을 보기.

www.artnstudy.com